

진제 종정예하, 신년하례서 법어 내려

사부대중은 화합 정진하여 부처님 법을 세상에 널리 전하자

종정예하 진제 법인대종사께서는 1월 3일(목) 오전 10시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열린 계사년 신년하례법회에서 “사부대중은 화합하고 정진해서, 부처님의 심인법을 세상에 널리 전하도록 정진하자”고 말했다.

종정예하 스님은 법어를 통해 “교역직에 종사하는 스님들은 공심의 자세로 행과 위의를 반듯이 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몸소 나누고 실천하는 자비행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계사년 새해에는 우리 사부대중이 화합하고 정진해서, 부처님의 心印法이 四海五湖에 널리 유포되게 정진할 것이며, 금생에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생애 이 解脫法을 만나겠는가. 見性코져 活進대 左右를 돌아보지 말고 話頭가 一念으로 지속되게 노력하고 노력하기”를 당부했다. 그리고 스님은 세 차례의 미국 방문 경험을 말하면서,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모든 지식인이 생활 가운데 참선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보면 간화선의 세계화가 도래하였다.”고 말하면서, “간화선을 통해 세계인들이 이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대중들은 한

국선의 세계화를 위해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신년인사를 통해 “종정예하의 가르침을 성심으로 받들고, 원로의장스님과 원로의원 스님을 잘 모시고, 예하의 뜻처럼 종도들은 화합하고 부처님의 심인법이 사해오호에 널리 퍼지도록 정진할 것이다. 현장에서 정진하는 교구본사 주지스님,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과 더불어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자들 또한 진력을 다 하여, 종도와 불자는 물론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지혜로 자비행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년하례식에는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을 비롯하여 원명, 명선, 도문, 혜승, 법흥, 월파, 월탄, 인환, 정관, 지성스님 등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들이 함께했다. 또한, 총무원장 자승스님, 종회의장 향적스님, 호계원장 일면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지원스님, 중앙종회의원스님, 교구본사 주지스님, 총무원 부실장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우스님, 중앙신도회 이기흥 회장, 동국대 김희옥 총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함께했다.



“종단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활동 펼치겠다”

제5기 국제교류위원회 위원 10명 위촉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월 7일 종단 국제 정책 및 국제 불교교류 활성화에 앞장설 제5기 국제교류위원회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위원들은 종단 내 분산된 국제 분야 실무자와 단체장을 위원으로 영입하는 한편 위원 수도 6명에서 10명으로 늘렸다. 국제교류위원의 위촉을 통해 종단 내 분산된 국제 업무능력을 사회부 국제팀 중심으로 역량을 모으고, 종단 내외의 실질적인 현장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제 33대 집행부의 핵심과제인 ‘한국불교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이다. 또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지역을 담당할 전문가로 해당 분야 연구진과 교수들을 참여시켰다.

이번 국제교류위원은 사회부장 법광스님과 포교부장 송묵스님을 당연직 위원으로, 조계종 국제특보 진월스님(동국대 경주캠퍼스 선학과 교수), 외국인 행사교육원장 수암스님(서울 화계사 주지), 국제불교학교 처장 지정스님, 국제선센터 국제차장 혜연스님을 비롯해 이민용 한국불교연구원 원장(미국 지역), 김종인 국제제가 불교포럼 위원장(유럽 지역), 박영환 동국대 서울캠퍼스 중어

중문과 교수(대만, 중국 지역), 권영구 국제포교사회 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오는 2015년 1월 6일까지이다.

총무원장 스님은 그동안 위원들의 활동이 미진했던 점을 지적하며 “한국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해 애정을 갖고 온 힘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2년간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주요 활동은 불교용어 통일화 정책, 불교 국가 간 국제협력 방안 연구,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전략, 종단 국제 중장기 정책 수립 등을 주제로 세미나

와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열어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매진할 예정이다.

한편 제5기 국제교류위원회는 위촉식에 이어 2층 분과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국제팀 주요 사업과 상반기 일정을 공유하였다. 올해 국제팀은 애플 시스템 도입, 미국 일본 중국 태국 등 7개국에 종단문장 및 명칭 특허 취득사업, 국제 홍보 강화, 국제교류에 관한 법령 제정 등을 추진한다.

위원장 법광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우물안 개구리밖에 안 된다”며 “경험에서 우러나는 지혜를 모아 임기 동안 왕성한 활동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위원들도 종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부위원장 진월스님은 “종단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주요 사안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출장으로 위원인 지정스님과 박영환 교수는 불참했다. 글_사회부 국제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외국인 상시 운영사찰 홍보를 위한 리플렛 제작 중

템플스테이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면서 외국인들의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인을 언제나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상시운영사찰이 총 16군데가 선정됐다. 16개 선정 사찰은 공개사업발표회와 외국어 능력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사찰 특화성과 사업수행능력을 인정받아 최종 결정된 곳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스님)은 선정 사찰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더욱 체계화된 외국인 전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연중 어느 때라도 외국인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 인력 외에 외국인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있다. 또한, 매년 2회 전담인력 교육을 통해 질 좋은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리플렛에는 템플스테이 관련 질문부터 시작하여 예불, 참선, 다도 등 템플스테이 프



로그램 소개, 16개 외국인 상시운영사찰에 관한 영문 설명과 찾아가는 길 등이 담겨 있다. 제작이 마무리되면 템플스테이 1층 홍보관 및 16개 사찰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02-2031-2000

www.templestay.com



국제포교사회, '제6회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 개최

대한불교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권영구)에서는 부처님의 본생담(Jataka)을 영어로 발표하는 '제6회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The 6th Jataka Story Telling Contest)'를 개최했다. 본 대회는 2008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제6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해마다 참여 사찰과 참가자가 증가하는 등 대회에 대한 사찰과 어린이, 학부모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월 5일 초·중학생(1명 또는 2명 이상이 한 팀을 구성)을 대상으로 하며, A그룹(초등1-4학년)과 B그룹(초등5-6학년, 중학생)으로 나누어 대회를 치렀다. 22개의 사찰 등에서 82팀 87명이 참가해 예선을 시행하였고, 부산 흥법사를 비롯한 11개의 사찰 등에서 출전한 25개 팀 29명이 본선에 진출하였으며, 본선은 1월 12일(토)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그동안 갖고있는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진행했다.

심사위원회에는 송묵스님(포교원 포교부장), 스캇 스캐터굿미, 아주대 교수 등 스님, 원어

민, 국제포교사들이 참여했으며, 표현력, 발음, 태도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았다. 영어로 한국불교의 미래인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작됐다.

자타카의 한 편 한 편의 이야기는 짧고 간단하지만, 정직·인내·배움의 중요성·자비 등 반드시 알고 익혀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린이들이 영어로 재미있게 배우고, 부처님 이야기를 영어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맞는 영어 실력향상과 더불어 삶의 지혜, 도덕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무엇보다 이 대회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즐거운 마



▼ (좌) 제작 중인 리플렛에서 외국인상시운영사찰 가운데 금선사와 봉은사를 소개하고 있다. (우) 외국인 상시운영사찰

번호	지역	사찰명	연락처
1	서울시	종로구	금선사 02-395-9955
2		종로구	묘각사 02-763-3109
3		강남구	봉은사 02-3218-4826
4		양천구	국제선센터 02-2650-2242
5	인천시	강화군	전등사 032-937-0125
6	대구시	동 구	동화사 053-982-0223
7	부산시	금정구	범어사 051-508-5726
8	강원도	평창군	월정사 033-339-6606
9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 031-235-6886
10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사 010-6589-0108
11		고창군	선운사 063-561-1375
12	전라남도	해남군	미황사 061-533-3521
13	경상북도	김천시	직지사 054-429-1716
14		경주시	골굴사 054-775-1689
15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 055-934-3110
16	제주도	서귀포시	약천사 064-738-5000

동국대 국제선센터, 토요 영어법회 글렌 물린 초청 강연

동국대 국제선센터는 19일부터 오후 2시 대각전 법당에서 '티벳 로종 마음수련 명상법(The Tibetan Tradition of Lojong Meditation: Training the Mind in the Great Way)'를 주제로 토요 영어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캐나다 학자인 글렌 물린(Glenn Mullin)이 진행했으며, 영국왕립학회 한국지부 30여 명의 외국인 회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불교문화탐방 프로그램 중 하나로 동국대 정각원과 박물관을 견학하고 국제선센터 법회에도 참여한 것이다. 글렌 물린의 주요 이력은 캐나다 알리스 대학 졸업 후 12년간 인도 다람살라 티벳문화대학 티벳학 연구, 티벳불교와 달라이라마에 관한 30여 권의 서적 집필, 티벳불교학자, 티벳서적 번역가, 탄트라명상 지도자이다. 주요 저술로 <14명의 달라이라마> <티벳불교의 신비> <나로파의 6요가> 등이 있다. 한편, 토요 영어 법회는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며, 주위의 친지나 도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를 부탁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글: 동국대 국제선센터 김영수 과장
(02)2260-3891 / 홈페이지 http://seoncenter.dongguk.edu

English Dharma Talks 영어 법회 (Saturday 2~4pm, 토요일 오후2~4시)

Date	Dharma Teacher	Topic	Time	Place
1.19	Glenn Mullin (그렌물린, 캐나다)	The Tibetan Tradition of Lojong Meditation - Training the Mind in the Great Way	16:00~17:00	Dharma Hall
1.26	Tsering Norbu (쓰링노르부, 티벳)	Tibetan Medicine - Tibetan medicine's origin and application in Buddhism	17:10~17:40	Dharma Hall
2.16	불림스님(한국)	Korean History and Buddhism	17:40~18:00	Dharma Hall
2.23	혜달스님(인도)	Cultivation of Loving Kindness in Buddhism		Dharma Hall

음으로 준비하고, 나아가 가족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모습이였다.

영예의 대상은 제2교구본사 용주사 장수정 어린이에게 돌아갔으며, 최우수상은 서울 봉은사에서 출전한 자유진(서울 성자초교 4학년)어린이와 구도은(서울 양천초교 4학년)어린이가 각각 차지했다. 이 밖에도 부산 흥법사와 대구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서울 국제선센터, 진관사, 보명사, 봉곡사, 금강선원, 비로자나국제선원, 오산 대각사 등지에서 출전한 20여 명의 어린이가 장려상과 심사위원상, 인기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내년 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예선 탈락자, 참관 목적으로 온 사찰담당 선

생님과 스님 등이 본선을 주의 깊게 관람하였으며, 마지막 순서인 레크레이션, 불교 어린이 합창, 기타 연주 등 흥겨운 공연도 함께 즐겼다.

글: 국제포교사 여래성
02-722-2206 / www.idia.or.kr

◆ 자타카(Jataka)란 환생에 태어나기 전까지의 전생이야기는 의미로,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으며 한역경전 '본생경'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생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무수한 과거 생을 왕이나 상인, 수행자, 사승, 원숭이, 양무새, 코끼리, 나무 등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나 선형 공덕을 쌓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설화로 표현한 것이다. 권선징악(勸善懲惡), 현재의 즐거움과 괴로움은 과거의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의 결과라 설명하고, 이러한 설화를 통하여 인과(因果)의 법칙을 가르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화로 알려져 있다.

미얀마 어린이들에게 교육 통해 부처님 자비 전하고자

라디오 스타 '행복한 미소'의 주인공 성전스님 '행복한 미소 용문학사' 준공

라디오 스타 '행복한 미소'의 주인공 성전스님(남해 용문사 주지)은 지난 11월 8일 미얀마 판린시 꾀찬꽁 마을 땃다마 저디까용 사원 학교에서 '행복한 미소 용문학사 준공식'을 가졌다.

3년 전 미얀마를 여행했던 스님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미얀마 어린이들의 맑은 모습을 보고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건립하겠다고 발원했는데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다. 신도들과 청취자들의 마음으로 모은 5000여 만 원이 지난 5월 미얀마 판린시에 위치한 땃다마 저디까용 사원 학교에 전해졌다. 이 기금으로 양곤 남쪽 외곽에 있는 사원 학교에 120명이 공부할 수 있는 학사가 지어졌고, 성전스님과 순례단 일행은 11월 8일 준공식 현장을 찾았다.

1993년 개교한 땃다마 저디까용 사원 학교는 30여 명의 고아를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년이 지난 현재 1학년에서 7학년까지 초등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가 509명이나 되는 큰 규모의 학교로 발전해왔다. 5세 이상의 어린이는 종교나 인종과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아, 극빈층 어린이, 보호자와 함께 살 수 없는 국경과 산악지대 어린이들이 학생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기부로 운영되고 있는



① 용문학사 테이프 커팅 ② 용문학사 학생들과 기념사진 촬영 ③ 용문학사 현판식 ④ 선물 전달

사원 학교는 아직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만 하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이번에 세워진 학사자리에는 대나무로 만든 교실이 있었다. 많은 비가 내리는 우기 때면 학생들이 비를 피해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가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용문사 주지 성전스님과 불자들의 후원으로 세운 신식 학사에서 아이들은 더는 곳을 날씨와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8일 미얀마 성지순례를 마친 성전

스님과 순례단이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 학사의 오픈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 시간은 미얀마에서 중요했다. 우리나라에서 길일을 택하듯 테이프 커팅 시간은 정확히 10시 27분에 진행됐다. 테이프 커팅이 끝나고 현판식이 이어졌다. 신축된 학사 이름이 흥미롭다. 한글로 '행복한 미소 용문학사'라고 새겨진 현판이 커튼이 거치자 모습을 드러냈다. 사원 스님들과 성전스님, 참석 대중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땃다마 저디까용 학교 우마우미에 교장은 인사말에서 "여러분의 도움으로 더욱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된 아이들을 대신해 감사하다"며 "여러분이 전해준 부처님의 자비를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물 전달식 등이 끝난 후 곧이어 학생들의 공연이 이어졌다. 35도가 훌쩍 넘어가는 무더운 날씨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역주민 등 700여 명이 모두 끝까지 무대 주변에 모여 공연을 관람했다. 마을 축제임을 알리듯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과 과자 과일을 파는 행상들도 곳곳에 자리했다. 한국에서 온 후원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학생들이 한 달 전부터 공연을 준비했다고 한다. 무더위에 지쳤던 순례단도 아이들의 맑고 발랄한 모습을 보자 이내 흥겨워하며 즐거워했다. 이번 순례에 동참한 최탁환씨는 "아이들의 맑은 모습에서 양곤에 황금으로 세운 세다곤파고다 보다 더 깊은 감명과 환희심을 느꼈다"며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된 연연에 감사해 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전통음악이 흘러나오고 순례객들과 학생들은 무대 위에서 춤사위를 벌이며 하나가 됐다.

사진제공: 불교신문

월드머시코리아, 희망을 품은 고등학교 건립 준공 400여 명 학생과 주민의 숙원 이룬다

미얀마 국토 중에서도 가장 오지로 불리는 마켓주 네마웃군 레부마을에 400여 학생들과 마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등학교가 건립되었다. (사)월드머시코리아대표이사 현진스님은 2년여에 걸쳐 1억 5천 만원을 들여 초·중학생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교실 10칸)를 건립하여 준공식을 했다. 교사 건립뿐만 아니라 부대시설인 책걸상과 발전/전기시설과 우물시설, 화장실 시설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교생활의 환경까지도 시설 완공하여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레부 마을은 7,000여 주민이 주위에 있으나 오지 중의 오지로 불리는 산골 마을이다. 군청 소재지에서 2시간여 걸리는 거리이지만 도로다운 도로가 없고, 교통수단은 주민이 이용하는 오토바이 외에는 전혀 없는 상태. 화물트럭이 가끔 어렵게 운행되고 있지만, 일반적 차량이 다닐 수 없는 악조건의 도로로 우기에는 모든 차량이 운행 중단된다. 다행히 마을에는 초·중학교까지 있다. 주민은 대부분이 농사에 의존하고 있으나 척박한 산골이라 가난하기 짝이 없다. 전기시설도 없고, 우물도 없이 빗물을 받아 생활한다.

초·중학교도 다르지 않다. 오래된 교사는 곳곳이 허물어지고 교실바닥은 맨땅이다. 어린 학생들이 조금만 발장난을 쳐도 급세 먼지투성이의 교실이 되어 버린다. 당

장 리모델링이라도 해야 하는 환경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중학교를 마치면 고등학교 교육이 중단되는 것이다. 척박한 농사를 짓는 가난한 삶의 부모들은 군청 소재지의 고등학교는 90%가 그림의 떡이다. 고등학교 진학은 꿈도 꾸지 못하고 포기 속에서 가난한 농사에 매달리고 만다. 자녀를 위해 주민들은 수십 차례 정부를 향하여 고등학교 건립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념의 군정당국은 주민의 간청을 무시하였다. 주민들의 수십 차례 간청에 정부는 차마 무시만 할 수 없었는지 본인들 손으로 학교를 세우면 그때에는 교사를 파견, 정부학교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하였다. 주민들은 막막하기 그지없었다. 학교를 건립할 수 없는 것은 당국이 먼저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가운데 2011년 레부마을은 월드머시코리아와 인연이 닿았다. 주민들은 학교 건립을 간절하게 하소연하였다.

현장 조사를 마친 월드머시코리아는 여러 가지 악조건을 생각하며 처음에는 난색을 보였다. 공산품은 5~6시간이 걸리는 도청소재지나 있었고, 시멘트, 모래 한 차 실어 오는 것도 200리 밖에나 있었다.

도로사정이 어려운지라 트럭 한 대의 운임도 다른 곳의 몇 배였다. 여러 악조건인 환경이 망설이게 하였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순수한 애절과 간절한 소망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배움에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이

무엇보다도 아프게 다가왔다.

2011년 7월 월드머시코리아는 마을의 숙원과 학생들의 소망과 내일의 꿈을 실어 주기로 마을 사찰에서 기도하며 기공식을 했다. 공사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제때에 물자가 공급되지도 않았고, 작년에는 우기가 5개월여나 지속되어 아예 공사가 중단되다시피 하였다. 그래도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간절한 주민들의 기도와 학생들의 소망은 이루어졌다.

2012년 12월 1일 드디어 A동 교실 5칸과 B동 교실 5칸의 교사와 부대시설이 완공되었다. 학교 준공식은 7,000여 마을 주민의 축제의 광장이 되었다.

비록 가난하지만, 순수의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밍글라버' 감사의 인사를 울리며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학교의 탄생에 손을 흔들며 마냥 기뻐하였다.

마을의 부총장 우쥬민소 씨는 우리 마을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다며 숙원을 이루어준 월드머시코리아는 우리 마을에 영원히 살아 있을 거라 감사하며, 마을이 생긴 이래로 최고의 축제가 되었다며 마냥 기뻐하였고, 월드머시코리아의 책임자로 일할 한 현지 지부장 우뎨쑤 씨는 월드머시코리아를 만난 것이 너무도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현진스님과 종광스님은 인사와 축하 말을 통하여 "이제 학생 여러분의 꿈은 절반

(위)미얀마 레부고교 교사 전경 (아래)교사 준공 기념 표지석



은 이루어졌고, 절반은 학생들의 몫이라며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 사회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항상 기도"하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둘 것이라고 격려했다.

여의도 포교원 합창단은 트럭을 타고 마을을 가고 오는 빗길 속 최악의 고행길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마을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아름다운 축가를 부르며 위로하고 사랑의 선물을 한 아름 안겨주었다.

후원문의: 월드머시코리아 사무국 070-4411-9136

미국 남가주 사원연합회, 회장에 LA 고려사 묘경스님 취임

LA 고려사 주지 묘경스님이 미국 남가주 불교사원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앞서 남가주 불교사원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2일 로텍스 호텔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묘경스님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였고, 1월 5일 LA 고려사에서 이 취임식을 갖은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에는 사원연합회 전 회장 만성스님(관음사의 축사와 묘경스님의 취임사, 고문인 현일스님(법왕사)과 현철스님(반야사)의 축사가 있었다. 현일스님은 축사에서 “남가주 불교가 위축되었지만, 사원연합회 활동을 활발히 하여 불자들이 자긍심을 느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묘경스님은 연합회 소속 20여 개의 사찰과 재가단체 간의 소통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사찰 주지스님과 재가불자들이 화합해 한국불교의 참모습을 보여 주겠다. 미국에서의 포교 환경은 척박하지만, 신심 깊은 불자들을 많이 양성하여 불교 인재로 거듭나게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종단이나 한국 불자들이 관심을 두고 힘을 모아주길 부탁했다. 연합회의 주요 활동으로 대규모 봉축행사, 어르신 호도관광, 소외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및 모금행사 등을 올해 목표로 소개했다.

묘경스님은 2011년 8월 7일 제5대 LA 고려사 주지로 취임했다. 은사인 현호스님을 시봉하기 위해 2003년 바다 건너 미국

땅을 밟았다. 고려사 총무 소임을 보면서 열악한 포교 현실을 목격하고 한국불교 세계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스님은 미국에서 신도들과 소통의 방법으로 기도를 제일 먼저 꼽는다. 그래서 매주 일요법회는 물론, 셋째 주에 참선법회, 하안거 동안 100일 기도, 우리나라 대표 절기인 설, 백중, 추석, 동지를 맞이하여 7일 정진 기도 등을 하고 있다.

해외포교의 선구자인 자운, 구산, 일타스님 등을 본받아 더욱 매진하겠다는 스님은 “불교에 관심 있는 현지인 포교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취임식에는 법왕사 주지 현일스님, 반야사 주지 현철스님, 선각사 주지 선학스님, 태고사 주지 무량스님, 금강선원 주지 경진스님 등 9분의 스님과 40여 명의 재가단체장과 신도들이 참석했다.

LA 고려사 1-808-735-7858

북가주 연합 청소년 모임 카이바, 스키 캠프와 함께 화두 ‘좋은 친구란?’

매년 열리고 있는 카이바(KAYBA) 겨울 스키 캠프를 형전스님 지휘 아래 아이들 모두 사고 없이 즐겁게 다녀왔다.

1월 3일 차 4대가 아놀드(Arnold, CA)를 향해 출발했다. 2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캐빈에서 짐을 풀고 저녁 준비를 하였다. 맛있게 저녁을 먹은 후, 스님께서 Friendship 우정에 대해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설명하여 주셨고, 아이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란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다. 30분 동안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종이에 썼고, 동그랗게 둘러앉아 각자 자기 생각을 얘기했다. 공통으로 생각하는 좋은 친구의 자질들은 솔직함과 정직함, 함께 있으면 즐거운 친구들이 좋은 친구라 아이들은 생각했다. 재미있었던 부분은 남자 학생은 예쁜 여자 친구들이 많은 친구가 좋은 친구라 하였고, 여자 학생들은 몸이 좋고 자주 씻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 하였다. 아주 유쾌하고 유익한 토론 시간이었다. 형전스님께서 끝맺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우리가 이러한 친구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하셨다.

앞 행사들을 함께하였던 아이들이라 서먹함은 오래가지 않았고, 많은 이야기꽃을 피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 예불을 드리고 참선을 하였다. 처음 참선을 해본다는 외국인 아이들도 같이 어울려 요가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는 등 단합된 모습이었다. 그다음 일정으로 스키장에 도착하였는데, 부쩍 친해진 아이들은 서로 짝을 이루어 스키/스노보드를 탔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서로서로 배려하며 노는 사이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물론 다음날 온몸이 뻣근하다며 호소하는 아이들은 많았지만.

마지막 날 아이들 모두 청소와 정리를 하고 단체 사진을 찍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너그럽게 캐빈의 숙소를 빌려주신 조보살님께 감사의 카드를 아이들과 함께 쓰고 작별 인사를 하였다. 짧았던 2박 3일 여행이었지만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쌓았던 시간이었다.

글_ 공태윤 법우



뉴욕불교신도회, 미동부 청소년 불교문화 연수단 참가자 재회 모임 주최

2012년 12월 22일 미동부해외특별교구 본원인 뉴욕 불광선원에서 뉴욕불교신도회 주최로 제1차부터 4차까지 4년 동안 한국에 연수를 다녀왔던 미동부 청소년 불교문화 연수단 단원들이 만남의 장을 갖고 재회의 시간을 가졌다. 연수는 주로 미국에서 나고 자라 한국에 대한 막

연한 동경과 호기심을 가졌던 청소년들이 한국문화의 근본인 불교문화를 알고 배움으로 한국문화의 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등 새로운 삶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템플스테이와 불교문화 그리고 고궁과 산업단지 견학 등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한국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훌륭한 불교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었다. 연수를 통하여 불교와 한국 문화의 이해를 폭넓게 한 학생들은 불교문화의 포교와 한인 사회에서의 봉사



(미 대통령 봉사상을 받고 즐거워하고 있다.)

에 적극 참여하였다. 미동부해외특별교구와 뉴욕불교신도회에서 공동으로 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관리하였고, 이를 통해 자격이 충족된 학생 2명에게 봉사상의 꽃인 미 대통령 봉사상을 수여하였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연말 파티로 즐거운 시간을 마무리하였다.

아직은 초석 단계이고 미흡한 점이 많지만,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바른길로 인도함으로, 미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로의 불교 활성화와 우수한 한국 문화의 길잡이가 되도록 이끌어 줘는 지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믿는다. 하지만 더욱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제5차 연수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많은 관계자와 단체의 동참과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

글_ 뉴욕불교신도회회장 고희래

제5회 미동부 청소년 한국문화 체험 연수단 모집

- 대 상 | 미동부에 거주 및 재학 중인 8학년 이상 학생 (2012년 9월 기준 - 대학생 포함)
- 일 정 | 2013년 7월 3일 수요일 ~ 7월 12일 금요일
- 인 원 | 30명
- 참 가 비 | \$2,400.00 (한국 왕복 항공료, 연수비용 일체)
- 접수기간 | 2013년 4월 30일까지 (선착순)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여권사본 1부
- 주 소 | 104 Route 303 Tappan, NY 10983 Attn : 미동부 청소년 한국문화 연수단
- 전화 및 이메일 | 917-533-8175 / nybulkyosindo@gmail.com
- 주 최 | 뉴욕불교신도회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미동부해외특별교구, 대한불교조계종 국제불교학교
- 목 적 | 한국문화의 이해와 자아 성찰, 문화유적지 탐방, 사찰 답사 및 Temple stay
- 세부일정 | Temple Stay, 불국사, 청와대, 포스코, 방승국 등 견학

※ 현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국 다롄·상하이 한인 법당, 수불스님 초청 특별법회 개최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다롄을 방문, 송년법회를 열고 현지 교민 불자들을 격려했다.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진명스님, 사천 구룡사 주지 철오스님 등 초청법회 방문단 1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악한 포교여건에도 남다른 신행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현지 불자들을 격려하며 뜻깊은 법회를 열었다.

종교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중국에서 외국인이 한국과 같은 전통도량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진명스님과 교민 불자들은 지난 2008년 12월 현지에서 30여 평 규모의 아파트를 임대해 부처님을 모셔 신행 도량을 열었다. 현지 교민 120여 명이 신도로 활동하고 있는 길상사는 규모는 작지만, 정기법회와 함께 매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등 신행 활동만은 그 어느 법당에 뒤지지 않는다.

도착 다음날인 12월 23일 오전 수불스님 등 방문단은 길상사를 찾아 신도들과 환담을 하고 후원금을 전달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후 다롄 카이런 호텔에서 교민 불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수불스님은 법문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불교이며, 기복에 치우친 종교를 위한 종교 신자가 되어선 안 된다.”면서 “더불어 타국에서도 한국 불자라는 자긍심을 잃지 말고 계사년 새해에는 희망이 없는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인연을 크게 열어갈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문단은 12월 24일 다롄 다음으로 상하이에 도착했다. 이곳에는 한국사찰 3곳이 포교당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엄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는 용화선원이 가장 활발한 신행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곳 역시 2005년 아파트 임대에서 출발해 2007년 상가로 이전해 2층 규모의 포교당으로 확장

했다. 이곳에서도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법회가 열렸다.

이번 중국 초청법회를 주관한 문화부장 진명스님은 “법회를 준비한 중국 교민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훌륭히 소화하며 그동안 현지 불교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불자들입니다. 고국에서 온 사부대중의 방문이 앞으로 신행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진명스님은 지난 2006년 해외포교의 원력을 세우고 중국 베이징을 찾았고, 다롄에 거주하는 교민 불자와 인연을 맺어 2007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가정법회를 열었다. 이후 불자들과 힘을 모아 2008년 아파트를 임대해 포교당 ‘길상사’를 창건, 초대 주지를 맡았다. 진명스님은 “초기에는 불상도 모시지 못해 작은 향토와 부처님을 탁본한



〈길상사 송년법회〉

족자로 법회를 진행했고, 간혹 이웃집에서 묵락소리가 시끄럽다며 신고가 들어와 속속이며 기도만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최근에는 총무원 부장 소임을 살면서 자주 들르지 못했음에도 법당을 잘 운영하고 있어 항상 미안하고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상하이 용화선원 역시 베이징에서 열린 합동 수계법회에 참석한 현지 교민 불자와의 인연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진명스님은 이번 법회가 이들에게 분발심을 내는 좋은 계기가 된 만큼 앞으로 해외 교민불자에 대한 한국불교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_ 불교신문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주관으로 미국 서부지역 연수를 다녀와서...

나는 2012년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10박 11일 동안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대표 정범스님)를 통해 한미 청소년 국제불교문화연수단으로 미국 서부지역을 다녀왔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다녀올 여행지에 관하여 조사도 해보고 알아도 보니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았다. 새롭게 보고 느낄 수 있는 많은 체험과 미국 친구들과도 만나고 싶어 신청하였기에 비행기를 타는 9시간 내내 정말 설레었다. 미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지 현재 세계 최강국은 우리나라와 어떤 점이 다를지 궁금했다.

우리 일행이 처음으로 간 곳은 미국 아이비리그 중 최고의 대학 스탠퍼드 대학이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들도 정말 크고 좋지만 스탠퍼드 대학에 견줄 바는 아니었다.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땅도 넓고 기술도 뛰어나고 세계 최강국이고 하니 무슨 건물이든 간에 정말 큼직큼직했다. 하지만 음식점에 가서 우리나라와 다르게 음식을 먹고 팁을 내야 한다는 점은 정말 생소했다.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캘리포니아의 태고사와 한인타운, 사람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한다는 명소 100곳 중에서 하나인 그랜드캐니언,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였다. 캘리포니아의 태고사가 인상 깊었던 이유는 미국 산속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전통 한국식 사찰이었기 때문이다. 산속에 있다 보니 수돗물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물은 1년 내내 내리는 비를 받아 놓았다가 쓰고, 자가 전기 발전기로 전기를 만들어 쓰는 곳이다. 그래서 단원 전부가 잘 씻지도 못하고 전자기기를 쓰지도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제약도 없이 편리하게 사용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계기가 되어 정말 인상 깊었다.

한인타운은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음식

점, 약국 등 상점들을 운영하며 모여 사는 지역으로, 음식점에 들어가서 무엇을 물어보아도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가능했다.

그랜드 캐니언은 정말 말이 필요없었다. 웅장하고 규모가 엄청나 입이 썩 벌어졌다. 자연의 신비와 위대함 등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인상 깊었던 이유는 물론 재미도 있었지만 내가 약속 시각까지 출구로 가야 했는데

길을 잃어버렸다. 아무리 영어로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여 몸으로 표현을 했더니 길을 안내하여 주었다. 역시 만국공통어는 영어가 아니라 보디랭귀지였다.

이번 한미 청소년 국제불교문화연수단은 나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가보면 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지 알게 되고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 연수는 미국에 사는 재미

교포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그런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았다.

나는 요즘도 재미교포 학생들과 메신저나 페이스북(그룹 잠잠했어요)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교포 학생들을 통해 문화의 차이점 등등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고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다. 나중에 혹시 미국에 가게 되면 교포 학생들에게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꼭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저희 연수단을 이끌어주시고 좋은 경험 많이 시켜주신 정범스님과 지호스님, 형전스님, 선정화 보살님, 간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갈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글_ 목동 국제선센터 청소년 범우(금옥중 1학년) 채형래



(좌)버클리대학 (우)그랜드 캐니언

미동부해외특별교구, 미주 한국 불교계의 미래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 개최 예정

대한불교조계종 미동부해외특별교구와 미주현대불교가 뉴욕 불광선원에서 오는 3월 30일 (토) 오전 8시 30분부터 ‘미주 한국 불교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주 한인 사회에서 한인 이민자의 유령변화에 따른 한인 커뮤니티 변화를 인식하고, 미주 한국 불교계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서 한국불교를 다양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 1) 성원스님(하와이대학교 교수) - 정토진중(하와이교구의 정착과정과 미국 정착화)
- 2) 던컨 윌리엄스 교수(USC 교수, 일본조동종 스님) - 조동종의 미국정착과정과 현황
- 3) 송광섭 박사(전 해군사관학교 교수, 현 미 해군대학원 교수) - 정토진중의 미국 정착과정과 정착화
- 4) 서영민 교수(뉴욕시 라파디아 커뮤니티 대학교) - 한국과 일본의 미국 이민자 비교분석

- 일 시 : 3월 30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5시
- 장 소 : 뉴욕불광선원 - 104 Route 303, Tappan, NY 10983
- 대 상 : 사부대중과 한국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
- 주 최 : 미동부해외특별교구, 미주현대불교
- 연락처 : 미주 현대불교 718-460-4609 / 해외특별교구 212-574-4440 / 교구 사무처장 헤린 973-220-7100

빌 클린턴 前 미국대통령, 佛者가 되다

샌프란시스코, 미국 - 2013년 1월 10일 부디즘넷 뉴스사이트의 기사에 의하면 빌 클린턴 前 미국 대통령은 명상을 바르게 배우기 위해 개인적으로 불교 승려를 모셨다고 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명상을 배우고 있으며 채식다이어트도 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이 모든 변화는 분명 2004년 2월에 발생하였던 그의 심장에 대한 공포 때문인 것으로서, 그 당시 그는 가끔 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뉴욕시의 콜롬비아 장로교회 병원에 실려 갔었다. 그리고 그는 심장에 2개의 관상 동맥 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해야만 하였고 몇 달 뒤 4중 심장 우회 시술을 받아야만 했다. 2010년에는 5년 만에 두 번째 심장 시술을 하여 막힌 동맥을 확장하였다.



클린턴 前 대통령은 심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의 하나인 스트레스를 명상이 완화한다 말한다. 많은 여행과 업무가 큰 스트레스이지만, 명상을 배움으로써 그는 더욱 느슨해지는 것을 배웠고 이 배움으로 인해 삶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한다.

클린턴 前 대통령은 심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의 하나인 스트레스를 명상이 완화한다 말한다. 많은 여행과 업무가 큰 스트레스이지만, 명상을 배움으로써 그는 더욱 느슨해지는 것을 배웠고 이 배움으로 인해 삶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한다.

보도에 따르면 클린턴 前 대통령은 또한 상황이 바뀔 때 즐기는 진언을 하고 있으며, 그 진언 암송이 정말 그를 편안하게 만들고 보다 생각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또한, 많은 양의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곤 하였으나 지금은 과일과 야채 그리고 가끔 생선을 즐긴다고 하였다.

우리는 더 많은 정부 관리들이 삶을 건강하고 방법으로 전환하고, 불교 명상으로 더욱 느슨해질 필요가 있으며, 이 때문에 나라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0년과 2011년에서 알 수 있었듯이, 불교 명상과 건강한 식단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기 시작하였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긴장을 푸는 명상과 건강한 식생활로 변화되는 삶의 혜택을 깨닫고 있다. 타이거 우즈부터 스티브 잡스까지 불교는 더욱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진정한 명상은 긴장을 완화하는 것과 평화의 일상뿐만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미스터 클린턴에게 가져다준 변화와 유익함 역시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

메들린 실리 조사원 [2013. 1. 10]

더럼의 부처님 탄생지 전시회

더럼, 영국 - 부처님이 탄생하신 지역과 北東部 대학 간 연계로 새로운 전시회가 준비되었다. 이 불교 전시회는 고타마 싯달타 부처님의 탄생지를 공부하고 있는 더럼대학교 고고학과와 관심에서 비롯되었으며, 학생들은 세계 문화유산인 네팔의 룸비니에 관해 오랜 시간 동안 학술적인 탐구를 해왔다. 더럼 대학교의 그린 도서관 궁전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는 불교의 탄생과 남아시아를 가로지르는 불교의 전파에 대한 것이다. 영국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대영 박물관과 더럼 대학교의 동양 박물관에

서는 수많은 보물을 소장하고 있다. 더럼 대학교 박물관의 큐레이터인 클레이그 바클레이 박사는 "세계의 위대한 종교 중의 하나인 불교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기회이며, 놀라운 사진과 희귀한 유물들을 볼 수 있는 흥미롭고 새로운 전시회"라고 말하였다. 이 전시회는 4월 7일까지 열리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에 개장하여 오후 4시 45분 폐장한다. 관람료는 어른이 3파운드, 어린이는 2파운드이며 할인혜택이 있고 더럼대학생이면 무료라고 한다. *Durham Times* [2013. 1. 10]

시골 주택이 불교 센터로 탈바꿈

레드베리, 영국 - 레드 버리에 있는 3년 이상 비어있던 시골 전원주택을 한 불교 단체에서 샀다. 트리라트나 승가에서는 유서 깊은 건물인 코딩톤 코트라 불리는 시골 주택을 사들여 안거 및 교육 센터로 바꾸려고 계획 중이다.

5개의 커다란 빌딩들이 있고 그 안에는 실내 수영장, 영화관, 체육관, 오락 공간 등도 있다. 이 시골 주택의 마구간을 고친 작은 집은 상가락시타라는 87살의 승가 설립자를 위한 숙박 시설로 바뀌어 사용될 것이다. 트리라트나 승가의 대변인은 "아직은 시작단계이며 해야 할 일이 많다. 이 건물들은 몇 년간 비어있었고, 겨울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 건물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교육 센터가 여름부터 운영될 것이며, 승가에서는 개방하는 날 지역주민을 초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Leadbury Reporter [2013. 1. 11]

18세기 말에 지어진 이 시골 주택은, 클라이드 페트로리움이라는 한 석유 공장의 본부였다. 하지만 2001년 오티즘 웨스트미들랜즈라는 한 자선 단체에 소유권이 넘어가서 기숙학교로 사용되었다. 2009년 학교는 폐교되고, 그 이후부터 코딩톤 코트는 계속 비어 있는 상태였다. 이 지역에는 클라이드와 자폐증 자선단체에 의해 지어진

달라이라마의 국제 불교회의의 開會辭

비하르, 인도 -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14대 달라이라마는 1월 5일 파르티의 중심인 스므리티 공원에서 열리는 국제 불교 회의의 개회연설을 하였다. 사흘 동안 개최된 회의에는 정신적 지도자인 티베트 聖下, 비하르의 훈불 수석장관인 스리 니티쉬 쿠마르와 17개국 대표단 등 승려와 대부분의 불교학자들로 이루어진 수백 명의 대의원이 세계 전역에서 참가하였다. 달라이라마는 방글라데시, 부탄, 미얀마, 인도, 일본, 라오스, 스리랑카, 티베트, 태국, 베트남 등의 불교 국가에서 참석한 여러 원로 스님들과 대표들을 따듯이 맞이하였다. 물질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비하르의 역사에 잠재된 내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수석 장관의 열정과 예전에 어떤 장소를 자유의 상징으로 바꾸려는 그의 노력을 위해 기도하였다.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도달하였다.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아무도 그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대신 우리는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울 수는 있다. 물질의 발전과 정신의 발전 중에서 과학과 기술은 물질적인 발달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것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경우에 적합하다. 그러나 물질적인 발전과 함께 우리는 내적인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달라이라마는 말했다.

또한, "물질적인 발전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무감각해지기 마련이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보편적 현상인 탐욕과 기만을 일으키게 된다. 과학자와 사상가는 현대 사회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사랑과 자비의 부족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는 자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그것을 증진하기 위하여 더욱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이다. 비록 이것은 전통적으로 종교적인 책임의 하나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종교적인 측면과 아울러 우리가 모두 개인으로써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이 회의에서 우리는 불교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의 종교적인 전통은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더 큰 이해심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여러 세기에 걸쳐 같이 발전하고 있는 다른 종교의 전통

을 존경하고 있다. 다른 종교 간의 화합은 이 세상에 좋은 본보기가 되는 인도의 문화적인 전통이 될 것이다."라고 달라이라마는 말했다.

한편, 빠타리푸트라 카루나의 탑을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수석 장관의 의도에 만족을 표명했다. 그는 불교의 3대 경전 중 하나인 대장경은 불교 과학, 철학 및 정신적인 수행을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정신적인 수행의 부문은 불교인의 문제이지만, 영원하지 않음과 순간의 변화에 대한 설명 같은 과학과 철학은 모든 사람에게 흥미로울 것이다. 지금까지 인정되어온 진리와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불교의 설명은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의 증거라고 달라이라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탑의 생성을 불교를 포교할 기회로 보면 안 된다. 우리는 불교를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포교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육의 센터가 설립되었을 때 불교 과학 및 철학은 학술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수석 장관 쿠마르는 30분간 계속된 연설에서 비하르는 11억 크로르의 비하리스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백만 불교인들의 땅이라고 말하였다. 17개국에서 온 방문자들에게 불교 연맹을 개발하고, 비하르의 재건에 이바지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재처럼 수천 년 전에도 있었으며, 사람들은 불교의 도덕성을 받아들여 스스로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BC 483년 부처님이 열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법문한 리치치하 비스의 고대 지역인 바이살리에 곧 탑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 원로 회의는 고대 인도 왕 아쇼카가 부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불교의 필요성을 말했듯이 2000년 후인 오늘날의 시대에도 불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의 개회 행사에는 텐진 프리야다르쉬스님이 회의의 세 가지 주요 목적을 설명하였다.

① 도덕적, 정신적인 완벽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상적인 사람의 사회 만들기 ② 좋은 생활을 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이해 및 이해를 세대와 그다음 세대로 사회를 통해 확산 될 방법 만들기 ③ 잘 교육된 구성원의 민주주의적인 사회 만들기. 이 회의는 주 예술과 문화부에서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파르티의 중심부에 있는 22에이커의 불교 스므리티 공원은 2010년 스님에 의해 개관되었으며, 스리랑카, 일본, 미얀마, 한국, 태국 그리고 티베트에서 모셔온 부처님의 성스러운 사리를 모시고 있는 카루나 탑이 있었기에 대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The Tibet Post International [2013. 1. 7]

불교의 치유 개념

콜롬보, 스리랑카 - 부처님은 病者들을 돌보도록 그의 제자들에게 독려하셨다. 심한 급성 이질을 앓으며 구더기가 들끓는 가사를 입고 누워있는 몹시 아픈 스님을 발견했을 때, 부처님은 “병든 사람을 보면 나를 대하듯 하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아난다의 도움으로 병자를 씻긴 후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임과 의무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간호하는 사람이 가져야만 하는 실질적인 자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셨다. 그것은 약을 투여하는 능력, 병자와 어떤 부분을 동의할지 말지에 대한 분명한,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제력 등이다. 또한 간호하는 사람은 자비로워야 하고 타액, 가래, 땀, 소변과 농액 때문에 불쾌해하지 말아야 하며, 병자에 대해 친절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 **친절** 어떤 이에게 적절한 음식과 약을 제공했음에도 심각하게 아픈 경우에는 그 사람의 정신적인 조건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와 간호사의 친절한 말과 행동은 무력한 병자에게 희망과 편안함을 가져와 회복에 도움이 된다.

질병은 사람이 삶의 현실과 마주하는 시기이며, 사람은 편안할 때보다 아플 때 죽음의 공포가 자연스럽게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병자에게 佛法을 받아들여 함으로써 공포를 다스리는 최선의 치료방법이 될 수 있게 하며 간호하는 사람은 병자가 유심론에 의지함을 기대할 수 있다. 부처님은 ‘증일 아함경’ (Anguttara Nikaya)에서 3가지 유형의 병자를 설명하셨다. 즉,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과 상관없이 회복하지 못하는 병자, 의학적인 집중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 여부와 관계없이 회복하는 병자, 적절한 의학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만 회복하는 병자 등이다. 하지만 유형에 상관없이 병자가 살아있는 한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의학적 치료와 적절한 음식,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 **더 높은 정신력** 법구경에 의하면 건강은 가장 좋은 혜택이며, 부처님은 아픈 승려의 요구에 적당한 여러 가지 사소한 규칙을 제시하셨다고 설명되어 있다. 부처님은 당신이 병들었을 때도, 믿을 수 없는 의지력과 자아 통제력을 쓰시곤 하셨다. 마지막으로 아팠을 때조차 여러 장소에서 쉬긴 하였지만, 부처님은 아난다존자와 함께 빠바에서 쿠시나라까지 걸어가는 용기를 내셨다. 정신적으로 발전된 사람은 그의 정신적인 발전에 비례하는 좋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깨달음의 요소(칠각제)를 암송하는 것은 육체적인 병을 고침에 유용하다. 가섭존자와 목련존자가 병들었을 때에도 부처님은 깨달음의 요소를 암송하여 건강을 되찾게 하셨다. 부처님이 병들었을 때, 부처님은 춘다에게 깨달음의 요소를 외우게 하고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보장이 상윳따 (Bojjhanga Samyutta; 깨달음의 구성요소 상윳따)

에 전해진다. 부처님은 “승려는 아픈 경우에도 정신적인 발전을 위한 결심과 에너지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하셨다. 사람은 병이 들면 병이 악화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이 더 높은 정신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타락의 가능성은 더 높은 정신적인 功績의 습득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병이 회복되는 과정 중에도 역시 주의하여야 한다.

◆ **기쁨과 만족** 한 개인이 이미 획득한 정신적인 資質을 상기했을 때, 그것은 마음에 큰 기쁨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기쁨은 몸의 독소를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변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 개인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동안에도 자신의 정신적인 資質을 확신한다면, 건강 증진 요소는 건강 회복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 체내에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빨리 경전에는 불치병에 대한 상담을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다. 불치병에 걸린 병자의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쾌한 주제로서 피할 수 없다. 대신 죽음의 현실을 자신감과 차분함으로 병자에게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 **교양 있는 마음** 삼보의 숭고한 자질에 깊고 꾸준한 믿음으로 순수한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죽음에 직면해서도 어떠한 두려움도 일어나지 않는다. 죽음의 순간에 많이 발생하는 고민의 원인이 양심의 가책이다. 어떤 이가 이 중요한 순간에 두렵고 화가 난다면 윤회 역시 그와 비례하는 영역에서 일어 날 것이다. 부처님은 잘 닦여진 도덕적 선행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산다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만약 버터기름의 냄비가 물에 잠긴 후 깨진다면 질그릇 조각은 강바닥에 가라앉게 되지만, 버터기름은 표면에 상승한다. 이와 비슷하게 몸은 분해되지만, 교양 있는 마음은 버터기름처럼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윤회란 보통 살아있는 동안의 발생하는 생각에 달려 있다고 한 경전에 설명 되어있다. 즉 동물과 비슷한 생각에 빠져있던 사람은 그 비슷한 성격을 가진 동물로 다시 태어나는 반면, 이타적인 사랑과 자비로 승화된 감정이 있는 사람은 천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좋은 기회를 가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죽음을 위한 준비는 살아 있는 동안 해야만 한다. 불, 법, 승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과 도덕적인 습관의 배양은 실제로 더 높은 윤회의 습득을 전제로 한다. 미덕에 결함이 되는 것은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죽음의 시간에 장애가 되지만, 특정의 방어적인 經을 암송하는 희망과 함께 불치병에 걸린 병자의 침대 옆으로 승려를 초대하는 불교의 관습은 병자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의 생각을 더욱 더 높은 정신력으로 배양함에 도움을 줄 것이다.

◆ **정신적인 인도** 불치병에 걸린 병자

미국에 건설될 대규모 태국 사원

톤턴, 매사추세츠(미국) - 라인함 남쪽 도로의 동쪽에 건설 중인 寺院은 와트 나와민타라라추티스 또는 줄여서 NMR 센터라고 불린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109,000스퀘어의 복합단지에는 태국 국외에서 가장 큰 태국 불교 명상 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건물은 태국을 통치하였던 라마 9세 푸미폰 아둔야뎃 왕에게 헌정되었는데, 라마 9세는 그의 아버지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인 1927년 보스턴지역에서 태어났다. 태국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후원하기로 동의하였다.



(태국의 에메랄드 사원)

태국 불교 커뮤니티는 2006년 태국 불교 주지스님들이 라인함에 있는 토지 50에이커를 사고, 태국 불교 사원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사원 건립을 지켜보기 위해 스님들이 땅 옆으로 이주했다. 땅을 고르는 작업은 2011년 9월에 시작되었고, 뉴잉글랜드 전역의 수많은 태국스님이 특별 의식과 매년 집회모임을 위해 이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센터는 3층 높이로 세워질 것이며, 1층은 왕을 위한 박물관과 함께 카페로, 2층은 명상실, 3층은 15톤 무게와 20~25피트 높이의 거대한 청동 불상이 있는 사원으로 조성되는데 이 불상은 태국에서 배송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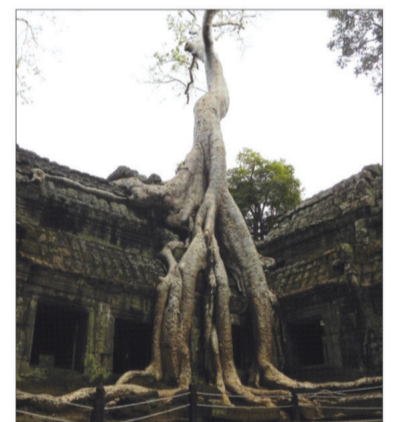
또한, 사원의 지붕에는 화려한 황금 첨탑을 얹을 예정이며 이로써 건물의 총 높이는 185피트가 된다. 이 프로젝트는 뉴잉글랜드 건축 외관과 태국 전통 사찰 건축스타일인 박공지붕을 융합할 것이다. 실내 장식 일부분이 태국에서 수입되어 기술자들에 의해 설치될 예정이다. 지금 형태를 갖춰 가고 있고, 7월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寺院의 종사자는 말하였다.

The Taunton Daily Gazette [2013. 1. 11]

불교의 폐허

씨엠립, 캄보디아 - 타프롬은 캄보디아의 여러 앙코르 사원 중 하나의 현대적인 이름이다. 사원의 대부분은 크메르 국왕 자야바르만 7세에 의해, 12세기 말과 13세기 초에 바이온 스타일로서, 대승불교 寺院과 대학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지어졌으며 원래의 이름은 라야비하라이다.

이 사원은 정글에 묻혀 있다가 19세기에 다시 발견되었다. 앙코르 사원 중 가장 낭만적인 사원이라는 이 사원의 특징은 자야바르만 7세가 프라즈나파라미타의 형태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바친 二重 塚(성 주위에 둘러 판 못)를 두른 왕궁의 수도원이라는 점이다. (프라즈나파라미타(Prajnaparamita)는 관세음보살의 여성형 표현이며 프라즈나파라미타는 지혜를, 관세음 보살(Avalokitesvara)은 자비를 상징한다.) 대부분의 앙코르 사원들과는 달리, 타프롬은 발견될 당시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사원 안팎으로 웅장하게 서 있는 나무들과 그 주위 환경의 조화 덕분에 앙코르 사원 중 가장 멋진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 거대한 나무와 탑, 벽에 정교하게 새겨진 글귀, 나무 덩굴 등 볼거리가 많다.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중앙 제단에 있는 “툼 레이터 나무”이다. 여기에서 실제로 영화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자스민 꽃을 뽑았던 곳이다.

The Asian Age [2013. 1. 7]

를 방문할 때,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는 슬픈 느낌이지만, 불교에 의하면 그러한 순간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에게 자비와 사무량심을 보인다면, 그 중요한 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이 불치병에 걸린 병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민감해져서 그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정신적인 생각의 물결을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부정적인 생각의 물결이 슬픔과 비탄

으로 생성된다면, 죽어가는 사람이 어쩌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사랑과 친절의 부드러운 생각이 퍼진다면, 이러한 생각들은 죽음의 순간에 고통과 불안을 덜어 불가사의한 정신적인 향유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만자리 페리스 (Manjari Peiris)
The Nation [2012. 12. 30]

▶ 6~7면 번역은 현재 국제포교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영진님이 맡아주었습니다.

한국YBA “지구촌 청소년 평화교실 2013” 개최

평등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길러

한국YBA(총재 지광스님)는 작년에 이어 올해로 2회째, 태국 국경도시 매솟에 거주하는 버마/미얀마 난민촌 학생들과 합숙하며 우정을 나누고 방콕 등지를 여행하는 국제연대 프로그램 “지구촌 청소년 평화교실 2013”을 실시했다. 국제연대 NGO 따비에와 진해 대광사 탄경스님(한국YBA 부총재)의 후원으로, 12월 30일~1월 7일까지 7박 9일 동안 열린 프로그램에 총 18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작년에 참가했던 청소년 8명 중 5명이 올해 다시 참가할 만큼 내부 호응이 좋은 이 프로그램의 좌우명은 “평등한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다. 봉사라는 용어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견해차를 내포할 때가 있어, 청소년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을 돕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봉사 대신 평화와 평등을 강조한다.

YBA가 4년째 운영비를 지원해 온 민마

호 고등학교에 여장을 뽀 참가단은 그곳 학생들과 함께 버마정치범원조협회, 메타오 클리닉, 국경 다리 등을 돌아보며 버마의 정치적 상황과 매솟 이주민촌의 실상을 둘러보고 지구촌의 다른 면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한편 인근 초등학교 약 800여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일 교사로 활동하는 등 다채롭고 알찬 시간을 보냈다. 또 민마호 학생들과 문화교류를 하고, 프리젠테이션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서로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참가자 홍성경(명지여고3) 학생은 “민마호 학생들은 매일 저녁 회의를 통해 자기 할 일과 규칙을 정한다. 나는 매번 작심삼일인데 이 친구들은 스스로 맡은 바를 다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경민(진해남중2) 학생은 “교육봉사를 할 때 유치원생 수



▼ 지구촌 청소년 평화교실 중 민마호고등학교에서

업이 재밌었다. 이 일을 계기로 꼭 선생이 돼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소감문을 적어 냈다. 다른 참가자들 역시 소감문을 통해 보고 느낀 점을 밝혀 이번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한국YBA는 참가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UN 지정 난민촌 내 생활, 치앙마이 탐방 등을 고려해 더욱 알찬 차기 프로그램을 만들 고자 구상 중이다. 한국YBA 02-6414-1034

‘눈으로 말하는 세계 속의 숨겨진 이야기’

전래동화책으로 본 세계 여러 나라 문화



아시아밝음공동체(대표 도제스님)는 2013년 1월 10일~16일까지 광주광역시 무등권 러리에서 ‘눈으로 말하는 세계 속의 숨겨진 이야기’라는 주제로 전래동화 삽화 전시회를 개최했다.

아직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 출신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다문화 가족 역시 일방적인 한국문화의 획일적 교육으로 다양한 출신국 문화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밝음공동체는 2010년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청, 지역 이주민들과 함께 중국, 베트남, 일본, 스리랑카, 몽골 전래동화책을 출판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대중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그간 출판된 전래동화 그림책 원화를 중심으로 기획 전시되었다. 부대행사로 한국어 동화구연, 결혼이주민이 출신국 언어로 들려주는 전래동화, 동화책 사본 색칠놀이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같이 진행되었다.

베트남동화삽화 “마술석궁” 그림책 작가인 이미경(서림초교)교사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부색이 다르다고 외면받는 이들을 위한 희망나눔 프로젝트이며 한국사회의 온정을 알려주고자 행사를 준비했다”고 한다. 동화책 출판은 몽골 동화 “에르히메르겐”의 정현주 화가를 비

롯하여 번역작가와 삽화작가들의 재능기부로 지원해 주었다.

아시아밝음공동체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에 다양한 문화가 숨 쉬는 공간을 마련하여 각국 도시로 꾸민 다문화도서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출판된 책들은 시중 서점에서 만날 수 있다.

아시아밝음공동체 062-236-0102

몽골법당 ‘부처님 안치’ 법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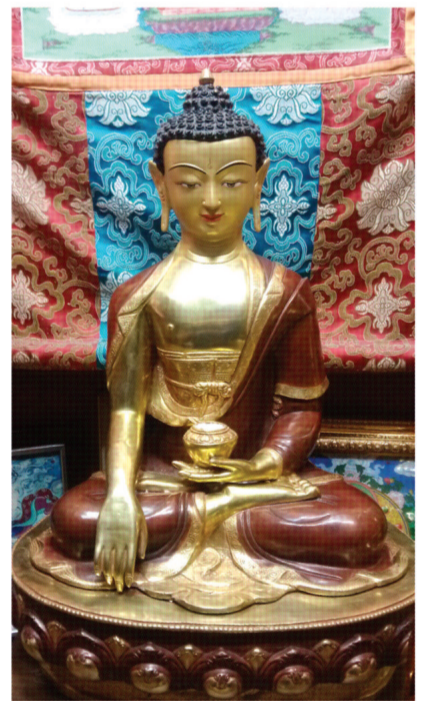
신년 포교 원력 발원

지난 12월 14일 동대문에 있는 몽골 법당(주지 바트보양스님)에서 새로이 네팔에서 모셔 온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탕카티벳불교 탕화 안치식이 거행됐다.

이날 부처님 안치 법회를 통해 바트보양스님은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활발한 포교활동의 원력을 다시금 다짐하시면서 몽골 이주민들의 건강과 원만한 한국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하였다.

법회에 참석한 자야씨는 “우리가 직접 부처님을 모실 수 있어 좋고 새해에는 주말 법회에 더 열심히 참석하겠다”며 기쁨과 포부를 밝혔다.

부처님과 탕카는 몽골법당 신도들의 심시일반 정성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 더욱 의미 깊다. 부처님 안치식을 통해 몽골법당은 이주민의 신행 중심 도량으로 자리매김함과 더불어 한국 생활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글: 몽골법당 바트보양스님



아시아 전래동화,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왼쪽부터 아이는 보물-일본 전래동화 / 마술석궁-베트남 전래동화
에르히 메르겐- 몽골 전래동화 / 동곽선생과 늑대-중국 전래동화

